감리교회를 빛낸 평신도 Ⅳ

2016년 기독교대한감리회 **평신도**

월례회 공과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2016년 기독교대한감리회 평신도

월례회공과

감리교회를 빛낸 평신도 Ⅳ

Contents

1과 신앙 생활의 모범 **안만천** 4
2과 중앙대학교 설립자 **임영신** 9
3과 독립운동가 **황도문** 14
4과 덕성여대 설립자 **차미리사** 19
5과 한국 역사 풍속화의 거장 **김학수** 24
6과 농촌운동가 **조민형** 29
7과 교회여성운동가 **방현덕** 34
8과 통일애국지사 **신창균** 39
9과 사회사업가 **장세환** 44
10과 교회여성운동가 **홍에스더** 49
11과 교육가 **신봉조** 54
12과 한국 교회음악의 개척자 **이유선** 59

“자랑스러운 평신도의 삶과 신앙”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신도 여러분!

오늘의 감리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음은 교역자나 평신도나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든, 웨슬리의 시대처럼 평신도가 믿음으로 일어선다면 한 나라가, 한 세기가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 웨슬리(John Wesley)는 영국 런던을 복음화하기 위해 46명을 23개 팀으로 나눠 23개 지역에 평신도들을 보내어 중보기도와 전도를 하게 했고, 이것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영국을 변화시킨 힘은 믿음의 거장 웨슬리만의 힘이 아닌, 그와 동역한 평신도들의 힘이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역할을 감당한 평신도들입니다.

이번 〈평신도 월례회공과〉에 소개하는 12인의 “감리교회를 빛낸 평신도”들은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앙과 삶이 다르지 않은 행동가들입니다. 독립운동가, 화가, 교육가, 농촌운동가, 여성운동가, 음악가, 통일운동가, 혹은 사회사업가로서,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큰 업적을 쌓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삶과 신앙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 비판하는 내용은 어쩌면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본받고 싶은 삶’에 대한 모델을 보여 달라는 외침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필요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는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성령행전, 평신도행전을 써 가면서 세상에 삶으로 말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히 11:38)고 말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2015년 12월

사회평신도국 위원장 안승철 감독

“오늘의 혁신, 내일의 희망”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150만 평신도들이 감리교회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리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어 주길 소원합니다.

사회평신도국은 한 해 동안 “오늘의 혁신, 내일의 희망”이란 주제로 ‘평신도단체 수련회’ ‘청장년선교회 임원교육’ ‘평신도 대학’ ‘평신도주일 성수’ ‘평신도 재능기부운동’ ‘기술자원봉사활동’ ‘생명나눔운동’ ‘착한소비365운동’ ‘보건주일 성수’ ‘노인대학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평신도들의 훈련과 차세대지도자 양성 그리고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나눔과 섬김으로써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자랑스러운 감리교인 12인을 소개하는 “감리교회를 빛낸 평신도”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공과를 발간해 왔습니다. 〈2016년 평신도월례회공과〉도 12인의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을 소개하는 “감리교회를 빛낸 평신도 Ⅳ”의 제목으로 발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희망과 소망의 길을 열어 주었던 자랑스러운 감리교회 평신도!

그 믿음과 삶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같은 믿음을 흠모할 뿐만 아니라 감리교회 평신도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평신도 월례회공과〉를 역사적 소명과 책임감으로 4 년간 집중 연구하여 집필해 주신 조이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월례회공과 발간에 도움을 주신 박경진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과를 사용하는 남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더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12월

사회평신도국 총무직무대리 송윤면 목사

1과

신앙 생활의 모범
안만천 장로

조용한 기도 : 다함께

찬　　송 : 505장(통 268장) 온 세상 위하여

기　　도 : 맡은 이

성경봉독 : 요한복음 1:10~13

참고성경 : 마가복음 13:24~27

요　　절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201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함께 하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빕니다. 올 한 해도 2013년부터 계속해온 자랑스러운 감리교 평신도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을 혁신하고 내일의 희망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감리교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사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성연교회의 안만천 장

로입니다. 그는 뒤늦게 주님을 영접했지만 자신의 생을 헌신한 인물입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님을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준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본론 안만천 장로는 1902년 충남 서산에서 7남매 중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가업인 농사를 지으면서 남의 부러움을 받는 부유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환갑이 다 된 나이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교인이 된 후에는 주일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와 새벽기도회까지 빠지지 않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 예배당 건축도 주도하여 아름다운 예배당을 봉헌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1959년 말, 안만천은 동생에게서 전도책자를 받았습니다. 동생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인물인데, 덴마크 등의 유럽 시찰을 하면서 예수 믿는 나라는 잘 살고, 예수 믿지 않는 나라는 못 산다는 것을 깨닫고 잘 살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 당시 부흥사로 이름을 떨치던 박용묵 목사의 설교집을 읽은 후 은혜를 받고 『부흥전도설교집』 등 전도책자 3권을 구입하여 형에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안만천은 전도책자 속에 깊이 빠져들었고, 밤을 새우면서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담배를 끊기로 하고 담뱃대를 꺾어 아궁이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설 명절을 지내기 위해 섣달그믐에 일곱 남매가 모두 모이자 안만천은 "앞으로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에 출석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열띤 토론을 거쳐 맏형만 부친이 별세한 후 첫 제사까지만 모시고 교회에 출석하기로 하고 나머지 가족은 새해 첫 주부터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교회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안만천은 1960년 첫 주일(음력)에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모두 이끌고 성연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갑자기 교회로 찾아온 그 가족들로 인해 예배당은 단번에 꽉 차는 듯했습니다. 그는 이미 가족들에게 "새해부터 우리 집은 주일을 교회 가는 날로 정한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주일은 교회 나가 예배드리자"고 천명한 터였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던 날부터 그는 철저히 주일을 성수하는 고집스런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속회, 새벽기도회를 가족과 함께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성연면에서 소문난 부자로 머슴을 셋이나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슴들도 주일을 지키게 하였고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가령 소를 먹이기 위한 꼴도 토요일에 미리 베게 하였습니다. 비올 때의 시급한 논두렁 관리도 주일에는 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해 12월 12일에는 지방 감리사 이강산 목사에게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되었고, 유사(재무부원)로 역할하며 교회 운영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성연교회 예배당이 국유지 산자락에 초라하게 지은 초가집이었고, 예배당 바닥은 그냥 땅을 고른 후 가마니를 깔아서 먼지도 많이 나고 습기와 냄새도 심하였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매우 송구스러웠습니다.

마침 1962년 초에 열린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마지막 날 새벽에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고 바닥에 뒹굴면서 과거의 삶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새 사람이 된 것을 기념하여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선 자기 집을 건축하려고 준비했던 목재(소나무 200주)를 교회에 헌납하였습니다. 250평의 교회 부지도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가난한 농촌교회였기에 이것만으로는 예배당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동산을 평가하여 십일조를 금액으로 환산한 후, 그 가치에 해당하는 가장 좋은 문전옥답 세 마지기를 팔기로 작정했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물 걱정을 하지 않는 논이니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고, 땅을 내놓은 그 날로 팔렸습니다. 이 일로 동네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부자가 예수 믿더니 갑자기 문전옥답을 팔았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성연교회는 성연초등학교 뒷산 자락(평리)에서 1962년 왕정리의 전망 좋은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동안 예배는 자신의 집에서 드리게 배려하였습니다. 온 교인들이 힘을 모아 터를 닦고 기초를 놓으며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안만천을 비롯한 교인들은 예배당(27평)과 사택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1963년 12월 17일 거행된 봉헌식에는 윤창덕 전도국 총무와 신도열(G. L. Sidwell) 선교사 및 윤춘병 서산동지방 감리사, 인근 교회 교인들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 날 성연교회 교인들은 매우 감격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안만천 유사는 교회의 자랑스러운 모범 교인으로 교회를 섬겼고 1966년에는 장로로 선택되었으며 1969년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여섯 자녀들도 모두 아버지 안만천 장로의 뒤를 이어 교회를 섬기는 데 앞장섰습니다. 큰 아들 안상진 장로는 남부연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 아들 안창환도 장로로 선임되어 삼대 장로 가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안상진 장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원로장로회가 수여하는 '제1회 신앙의 명문가 상'(2012년)을 수상하였습니다. 안만천 장로의 형제들도 모범적인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길지 않는 이 가정의 신앙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목사 34명, 장로 31명이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결론 안만천 장로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편안한 생활을 했지만 말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화시킨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같은 나누고 섬기려는 모습은 가족, 친척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가문 전체를 변화시켜 주님께 헌신하는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하였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2016년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 주님이 올 한 해 나 자신과, 우리 선교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무엇일가요?

찬 송 : 498장(통 275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주기도문 : 다함께

2과

중앙대학교 설립자
임영신 장로

조용한 기도 : 다함께

찬　　송 : 366장(통 485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기　　도 : 맡은 이

성경봉독 : 마태복음 6:25~34

참고성경 : 마가복음 12:32~33

요　　절 :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2월에 살펴볼 인물은 남산교회 임영신 장로입니다. 임 장로는 부모가 선교 초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근대적인 사상에 적극적이었기에 신앙으로 양육 받으면서 일찍부터 신학문을 접하였습니다. 또 민족의식 교육을 받아, 항일운동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그가 고난당하는 민족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기독교 신앙 안의 교육'이었습니다. 이후 그의 삶 전체를 이것

을 이루는 일에 바쳤고 결국에는 오늘의 '중앙대학교'란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본론

임영신 장로는 1899년 충청남도 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난히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컸던 그는 14세에 금산교회에서 집회를 하던 여자 선교사 콜튼(S. A. Colton, 전주 기전여학교 교장)을 찾아가 공부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그 후 콜튼 선교사가 입학원서와 초청장을 보내오자 결혼을 강요하며 진학을 극구 반대하는 부모를 설득해서 기전여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기전여학교에서는 민족의식이 강한 박현숙 선생이 지도하는 '공주회'라는 비밀결사대에 참여하여 항일의식을 키워나갔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매일 드렸습니다. 일본어 시간에 입을 열지 않았고, 아침 조회시간에 일본 국가를 부르지 않았으며 교실 정면에 붙은 천황 사진의 눈을 뚫어버리거나 먹으로 칠해버리는 등 저항하였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또 보수적이고 전근대적인 풍습에도 과감히 반대하며 쓰개치마 벗기 시위를 벌였습니다.

임영신은 졸업 후인 1918년에 천안의 양대학교 교사로 부임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평생 동안 교육활동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기도동지회(결사대)를 조직하였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에는 함태영에게 전달받은 독립선언서를 수백 장 등사하여 몸에 숨기고 전주로 가서 기전여학교 '13인의 결사대' 한 사람으로 전주 만세운동을 주동하였습니다. 이 일로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였으며, 6개월의 옥고를 치룬 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일경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11월 일본 히로시마고등여학교에 유학하였습니다. 졸업 후 공주의 영명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1923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이때 관동대지진으로 학살된 수천 명의 한국사

람 사진첩과 사건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승만에게 전달하여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10 년간 생활하며 남가주대학에서 공부하는(석사학위 논문 : "한국 불교도들의 기독교신앙으로 전향하는 길") 한편 민족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 여자전문학교를 설립할 생각으로 청과물 장사, 주유소 경영, 불도저 운전까지 돈 버는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1932년 1월 귀국한 임영신은 우선 조선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YWCA)의 농촌계몽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민족을 구하는 일은 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해 먼저 미국에서 모은 돈으로 흑석동에 학교 부지를 마련하였습니다. 1933년 중앙보육학교를 인수하여 교장으로 활동하며 '의에 죽고 참에 살자'는 이념을 펼치는 교육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중앙보육학교는 독립선언 33인 중의 한 사람인 박희도 전도사와 중앙교회의 장락도 목사가 주도하여 1916년에 설립한 '중앙유치원'에 기원을 두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학교 발전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기금을 모은 후 1938년 흑석동에 800여 평의 석조 3층 교사를 신축하고 이곳으로 이전하여 중앙대학교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1944년에는 일제의 탄압으로 신입생 모집을 중지당하고 폐쇄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임영신은 1941년에 조직된 친일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에 중앙보육학교 대표로 참여하였고 1942년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가 조직될 때에는 지도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 신생조국을 건설해 갈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의 정신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학교 문을 열고, '중앙여자전문학교'로 개편하여 학교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다시 '중앙여자대학'으로 개편한 후 남녀공학의 '중앙대학'으로 학칙을 변경하였고, 1953년에는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었

습니다. 그는 초대총장으로 취임하여 다음과 같이 이념을 구현해 나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들은 자신을 위해서 굳세고 용감하고 어질고 지혜롭고 착하며,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님께 효성 있는 자녀가 되고, 나라에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세계에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 주기를 주야로 기도하고 힘들여 노력할 것이며 더불어 그렇게 되리라고 깊이 믿는 바이다. 나의 이념인 의에 죽고 참에 사는 정신으로 나라에 영구히 빛나는 태양과 항상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기를 기도하는 바이다."

그는 총장직을 충실히 수행하여 학교의 발전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기에 교육연합회 회장(1965~1973년), 세계교직자연합회 회장(1966년) 등의 직책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1960년에는 남산교회 장로로 피택되어 교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신앙의 본을 보였고, 감리교의 교회학교 사업을 위해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오늘의 중앙대학교와 임영신이 있게 된 것은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신앙고백을 하였습니다.

한편 임영신은 사회와 정치 활동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해방 후 유엔대표로 유엔총회에 참석하였고, 1945년 10월 〈조선여자국민당〉을 창당하여 여성들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평등하게 확보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이승만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초대 상공부장관에 취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장관이 되었으며, 국회의원으로도 당선되어 활약하였습니다. 대한교육연합회장, 상공일보사 사장, 여성계사 사장, 대한부인회 회장(1963~1971년) 등을 지냈습니다. 1968년 아이젠하워상, 1969년 대한민국 청조근정훈장을 수상했습니다. 1977년 2월 17

일 별세하여 중앙대학교 교정에 묻혔습니다.

결론 임영신 장로는 교육 사업에 한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는 100여 년 전 사회를 지배했던 봉건의식의 굴레에 갇히지 않고 노력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였고, 식민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항일운동에 나서는 등 미래를 개척하는 열정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겪은 사상과 경험을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처음에는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그의 삶을 지지하는 바탕은 기독교 신앙이었기에 항상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우리 삶의 발전을 제약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특히 신앙의 성숙과 발전을 가로막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2. 우리 교회의 교육 현장에 직접 참여합시다. 교회교육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찬 송 : 516장(통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주기도문 : 다함께

3과

독립운동가
황도문 장로

조용한 기도 : 다함께

찬　　송 : 93장(통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기　　도 : 맡은 이

성경봉독 : 예레미야 1:4~10

참고성경 : 마태복음 5:13~15

요　　절 :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렘 1:10)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3월은 우리나라의 독립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전국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난 달입니다. 한국의 교인들도 신앙적 동기에서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평화적 만세시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는 많은 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난을 통해 기독교는 민족을 위한 종교로 인식되었고, 기독교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달의 인물은 강화 선두교회 황도문 장로입니다. 그는 학생으로 서울에서 3·1 만세시위에 적극 참여한 후 고향으로 돌아가 교인들과 강화의 만세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고향에서 장로가 되어 교회와 지방을 섬기는 지도자로 역할하다가 6·25전쟁 때 납치되어 희생당하고 말았습니다.

본론

황도문 장로는 1896년 7월 6일 경기도 강화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아버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사립 흥천 합일학교(1912년)와 서울의 배재학당 사범전수과(1914년)를 졸업하였습니다. 1917년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였으며, 1919년 3·1 만세운동을 맞게 되자 김원벽 윤화정 정석해 등 학생회 선배들의 지휘를 받으며 독립선언식에 참석하였고 3월 5일 학생들만의 만세시위에도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이후 황도문은 고향으로 돌아와 강화읍 만세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그는 고향에서도 만세운동을 해야겠다 생각하여 '독립선언서'와 '국민회보' 등을 가지고 귀향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출석하는 선두교회의 본처전도사 황유부와 길직교회를 담임하면서 강화남구역을 관리하던 이진형 목사, 온수리의 유봉진 권사 등 교회 지도자들을 3월 8일에 만나 유인물을 주며 서울의 독립운동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들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규합하여 다음날(9일) 주일 예배 후에 길직교회에서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이튿날 모임에는 위의 네 사람 외에 강화남구역 교회의 교인들 몇 사람이 더 합세하였습니다. 이날 모임에서 황도문은 서울의 시위 상황을 자세히 소개하였고, 참석자들은 논의 끝에 강화에서도 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날 참석한 사람들은 후에 '길상결사대원'이라 불렀습니다. 황도문은 지도부 3인의 한 사람으로 선임되었고, 구체적인 시위

계획과 추진 임무를 맡았습니다.

지도부는 3월 11일에 모여 만세시위를 결행할 날짜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인 3월 18일로 잡고 장소도 강화읍으로 하여 전 강화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독립선언서', '국민회보' 등의 유인물과 함께 '강화인민에게'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 "조선인은 거국적으로 독립운동에 열광하고 있다. 우리 강화군에서도 이를 결(決)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여야 할 것이니, 독립만세를 부르면 조선의 독립은 자연히 기약될 터이다"

이렇게 만든 유인물들은 지역 교회들을 통해 강화 전역에 배포되었고,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에게 시위 참여를 권면하였습니다.

시위는 계획대로 3월 18일 오후 2시경 강화읍시장에서 시작해 밤늦게까지 계속되었고, 시위에 참여한 인원은 2만 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시위는 강화 전역으로 확산되어 4월까지 계속되는 강화 만세시위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지도부의 유봉진 권사를 비롯한 많은 감리교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다행히 황도문은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여 체포를 면하였습니다.

황도문은 한동안 강화도 남쪽에 있는 '신도'와 '덕적도'로 피하여 숨어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곳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신흥학교, 합일학교의 교사로 봉직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강화 마리산으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에는 단군의 역사를 설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다같이 외치게 하였습니다. 당시 학생으로 수학여행에 함께했던 김호신 장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다. 황도문 선생은 학생들을 데리고 강화 본도에 있는 마리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다. 학생들은 들뜬 마음으로 기쁘기만 했다. 황도문 선생도 기뻐했다. 그러나 황도문 선생은 마리산 꼭대기에 있는 참성단에 이르자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단군 할아버지의 역사를 설명하더니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사력을 다하여 만세를 선창할 때의 선생의 그 용감한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때 만일 누군가가 당국에 고발했으면 모두 다 잡혀갔을 것이다."

또 그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파견된 독립군과도 접촉하며 군자금을 마련하여 보냈습니다. 당시 군자금 마련을 위해 개성에서 홍삼을 사다가 찐 후 배편으로 중국에 보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3년 후 3·1운동 지도자들이 옥에서 나오고 일제의 감시도 풀리자 황도문은 고향으로 돌아와 교회를 섬겼습니다. 1922년 9월 22일 강화에서 열린 '인천지방회'에서 본처전도사(장로)로 임명된 이후 다로지(선두)교회와 월오지교회, 산준교회에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름한 집에서 사는 그에게 사람들이 "전도사(장로)님이 어떻게 이런 누추한 곳에서 사느냐?"고 물으면 그때마다 "교회를 새로 짓기 전에는 내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교회에 대한 사랑, 헌신과 봉사로 인해 1939년 붉은 벽돌로 40평의 선두교회를 건축하였고, 나중에 자신의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교회와 강화 지역교회 및 인천지방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해방 후에는 길상면장으로 일하였으며 계속하여 선두리교회 장로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이 터지자 공산군에게 납치되어 그해 9월 25일 개성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2001년 독립만세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포장'을 받았고, 유해는 2008년 4월 대전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결론 황도문 장로는 평생을 교회와 민족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이 신앙을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또 교회가 설립한 선교 학교인 흥천 합일학교, 배재학당, 연희전문학교에서 신앙교육과 함께 민족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그는 3·1 만세시위에 참여하였고, 고향인 강화에서 만세시위를 주동하였습니다. 이후 교육사업과 교회전도사업에 앞장서서 활동하다가 6·25전쟁 때 공산군에게 납치되어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세와 부귀를 구하지 않고 빛도 없이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다 순교한 신앙인입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신앙적으로 사회와 나라의 문제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요?
2. 우리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과 후손들을 찾아봅시다. 그들을 기억하고 볼보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찬 송 : 312장(통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주기도문 : 다함께

4과

덕성여대 설립자
차미리사

조용한 기도 : 다함께

찬　　송 : 528장(통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기　　도 : 맡은 이

성경봉독 : 고린도후서 4:7~15

참고성경 : 사무엘상 2:1~10

요　　절 :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 4:7)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4월의 인물은 차미리사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민족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며 끝까지 올곧은 길을 걸어간 교육가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불행 속에서 기독교를 접하였고, 이를 통해 신앙뿐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고 새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차미리사는 선교사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게 되었기에 자신이 받은 은

혜를 사회에 돌리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중국과 미국에서 공부하고 귀국하여 당시 식민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특히 암흑 속에 있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의식과 생활을 개선하는 실제적인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본론 차미리사는 1880년 서울 마포에서 태어났습니다. 18세에 결혼하였으나 2년 만에 남편과 사별한 후 스크랜턴 대부인을 만나 기독교인이 되었고, 상동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미리사'라는 세례명을 받았습니다(김씨 성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였기에 1930년대까지는 '김미리사'로 불렸습니다). 1905년에 중국으로 유학하여 남감리회 여선교부에서 운영하는 쑤저어여학교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 안창호의 흥사단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독립신문을 발간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캔자스 더스칼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1917년 남감리회 여선교부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로 귀국하여 종교교회에 출석하면서 배화학당의 교사와 기숙사 사감이 되었습니다. 배화학당에서 여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하다가 1920년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는 학생시위로 학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미리사는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교육은 인생의 생명이다. 자녀는 부모의 생명을 연장하고 교육은 인생의 생명을 완전하게 한다."는 신념을 이루기 위해 교육사업에 헌신하였습니다. 특히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성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자교육운동과 여자생활개선운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1920년에는 〈조선여자교육회〉를 조직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여자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는 강연에서 "조선여자의 교육!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임을 강조하였는데 신문에 게재한 "일천만에게 새 새명을 주고자 하노라"는 글에서 자신

의 각오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한 몸을 조선여자 교육에 바치어 아주 헌신하려고 합니다. 현재 조선에 여자 교육기관은 관공 사립의 학교가 있어서 해마다 수천의 졸업생을 낸다고 하나 이것은 정부의 힘이나 외국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요, 우리 사람-더욱이 우리 여자의 손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에 분개하여 지식도 금전도 아무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천만의 조선여자 여러분과 함께 아무 감각도 없는 우리의 자매를 위하여 일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 동아일보, 1921. 2. 21

차미리사가 주도한 〈조선여자교육회〉의 활동을 당시 언론은 이렇게 격찬하였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일어나는 운동이 곧 여자해방의 운동이니 처음에는 교육운동으로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사회운동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암흑에 침잠해 있는 조선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향상을 위해 희생적인 노력을 하는 조선여자교육회의 하계 지방순회강연은 조선여자계의 일대 광명이며 생명 있는 신운동이다" – 동아일보, 1921. 7. 11

1920년 4월 19일에 서울 종교교회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야학회'를 설치하여 글자를 모르는 여자들에게 한글과 산술, 도화 등을 가르쳤습니다. 1921년에는 서울 청진동에 새 교사를 마련하여 '근화여학교'란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양복과', '상과' 등을 개설하여 기술, 사무교육 등 실제적인 능력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르치면서 실업교육이 남자에게만 해당된다는 당시의 편견을 깨는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여자에게 힘든 일을 시키려 한다는 비난에 시달렸지만 그는 여자에게도 직업이 필

요하고, 여자 역시 노동을 통해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여자 실업 교육 사상은 해방 후 여자상업고등학교와 여자실업학교 확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교육활동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차미리사는 강연회 음악회 연극회 바자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총독부는 물론 외국인 선교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립·자력으로 학교를 유지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교사를 초빙하는 한편 직접 학교의 교사이자 경영자로 학교 사무 전체를 주관하였습니다. 평소 주장하였던 자립의 삶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는 늘 "살되, 네 생명을 살아라! 생각하되, 네 생각으로 하여라! 알되, 네가 스스로 깨달아 알아라!"를 강조하였습니다.

여자생활개선운동을 위해서는 옷을 다려서 입을 것, 다듬이질을 하지 말 것, 옷을 염색해서 입을 것, 미신을 타파할 것, 수시로 빨래를 할 것, 청결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씻길 것을 직접 시범을 보였으며, 각종 계몽 강연 활동으로 이를 호소하였습니다.

일제 말기에는 '근화'라는 명칭이 무궁화를 상징한다는 일제의 시비로 1938년 '근화여학교'란 명칭을 '덕성학원'으로 바꾸었고, 1940년에는 교장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해방 후에는 그동안 계획해온 여성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위해 헌신하여 1950년 '덕성여자초급대학'을 개교하였고 이것이 오늘의 '덕성여자대학교'로 발전하였습니다. 1952년에는 덕성여자대학교 이사장직에서 사임하였고, 3년 후인 1955년 6월 1일 "온전한 독립을 못 보고 죽는 것이 유한이로다."는 말을 남기고 별세하였습니다. 200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습니다.

결론

차미리사는 여자 교육의 개척자로 여자의 권익 향상과 해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평생 실천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이 배운 경험과 지식을 한국의 여자, 그 중에서도 경

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이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야학회'를 설치하여 문맹 상태인 여자들을 깨우쳤고, 이를 오늘의 덕성여자대학교로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였습니다.

특히 차미리사는 여자에게 직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여학교에서 실업교육을 실시하여 당시 실업교육이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이러한 여자 실업교육사상은 해방 후 여자상업고등학교와 여자실업학교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우리 사회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찾아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찬　　송 : 311장(통 185장) 내 너를 위하여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주기도문 : 다함께

5과

한국 역사 풍속화의 거장
김학수 장로

조용한 기도 : 다함께

찬　　송 : 336장(통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　　도 : 맡은 이

성경봉독 : 로마서 5:3~8

참고성경 : 시편 137편

요　　절 :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롬 5:5~6)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이달의 인물은 시온교회 김학수 장로입니다. 그는 한국의 풍속과 역사 및 기독교 성화를 활발히 그린 화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재능을 보인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김유탁 김은호 변관식에게 사사를 받고 그림 그리기에 정진하여

역사와 풍속화의 대가로 인정받았습니다.

모태신앙인인 김학수 장로는 6·25전쟁 때에는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 피난하여 부산에서 시온교회 창립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이 교회에서 헌신하였습니다. 특히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풍속화의 기법으로 '한국에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문화선교에 몰두하였습니다.

본론

김학수 장로는 1919년에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남산현 교회에서 영아세례를 받았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매 순간 그를 지키고 성장시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30년 소학교인 신흥학원을 졸업하고 성경구락부에서 3 년간 수학하였습니다. 이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지만 다음과 같이 다짐을 하며 그 시절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 "매일 밤마다 잠들기 전에 뜨락에 나가 별을 보며 기도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를 간구했다. 그때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심했다. '비록 친구들처럼 학교에는 못 다니지만 어머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배운다면 장차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자.'"

이 각오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지만 교회에서 설교 말씀과 선각자들의 강연을 듣고 또 그들의 삶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각오하였습니다.

해방 후 북한정권이 들어선 후 미술동맹에 가입하지 않아 공산당의 미움을 산 그는 6·25전쟁이 일어나자 1950년 12월 아내와 아들 딸을 평양에

남겨 두고 홀로 피난을 내려왔고 다시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후 김학수는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 가족을 그대로 두고 떠나온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독신으로 지내며 제자 40여 명을 자녀처럼 돌보았습니다.(1989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모두 살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후 몇 차례 가족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즐겨하던 그는 1936년 김유탁의 문하에 들어가 사군자를 배우면서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고 1937년 '묵난'으로 일본 동경 남화회전에 당선되었습니다. 1942년 서울로 올라와 김은호 문하에 들어가 사사받았습니다. 그는 김은호에게서 동양화의 원리를 배우며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943년에는 조선미술전람회에 동양화 '노안'(蘆雁)을 출품하여 입선하였습니다. 1944년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하면서 해방을 맞았고, 그 후 설립된 평화중학교와 성화신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김학수는 6·25전쟁으로 월남한 후 피난중 만난 성화신학교 제자들과 함께 부산에 거주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한승호 안상현 전도사를 만나게 되었고, 의기투합하여 1951년 10월 '평양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북한 지역 특히 평양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의 신앙공동체가 되었는데 얼마 후에 교회 이름을 '시온교회'로 바꾸었고 다시 서울로 이전하여 오늘의 시온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교회 창립 때부터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헌신하였습니다. 특히 교회학교 교장을 맡는 등 교회교육에 애썼으며, 1960년대 초에 장로로 선임되어 평신도 지도자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림 그리기도 계속하여 1955년에는 변관식 문하에서 사사하였습니다. 변관식은 겸재 정선이 개척한 민족적 산수화풍을 근대에 계승한 실경산수화의 최고 대가입니다. 1966년 신세계화랑에서 첫 개인전인 '혜촌 김학수 한국풍속화'전을 열었고 이후 한국의 풍속과 역사를 주제로 한 역사

풍속화와 기독교 성화를 활발히 그렸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주제별 연작에 몰두하여 '능행도', '삼강행실도', '세종대왕 일대기' 등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대표작인 '한강대전도'는 1964년부터 2006년까지 40여 년에 걸쳐 한강의 발원지인 오대산에서부터 강원도 정선과 영월을 지나 강화도에 이르러 서해 바다와 만나는 한강 1,300리를 북녘 가족을 그리는 애끓는 심정으로 생생히 묘사한 350m의 대작입니다. 김학수 장로의 그림은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대상을 묘사하면서도 화면 전체에 웅장하고 활달한 힘이 넘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병 고침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예술의 목표가 국전 당선이나 대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일대기와 성경 주제를 한국적 풍속화 기법으로 재현하였습니다. 특히 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 예수님 일대기 33점과 한국 기독교 역사화 66점을 제작하여 전시회를 연 후 예수님 일대기 그림은 연세대학교 루스채플에 기증하였고, 한국 기독교 역사화 66점은 경기도 용인 순교자기념관에 기증하였습니다.

이렇게 김학수 장로는 그림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데 적극이었습니다. 삶이 평탄하지 않았지만 평생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꼈고, 삶의 모든 여정이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 '그림을 그리며 사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 등 세 가지를 감사하였습니다. 자기의 지난 세월과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인륜도덕이 타락함을 안타깝게 여겨 "한국충효위인도" 180점을 제작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경민대학교에 기증하여 젊은이들이 충신, 효자, 열녀, 위인들의 행실을 본받게 하였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상(1992년)과 대한민국문화훈장(1992년)을 받았으며

의재미술상(2000년), 아름다운미술인상(2001년), 인제대학교 인성대상(2002년) 등을 수상하였으며, 2009년 5월 8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론 김학수 장로는 다가온 고난에 굴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으로 이를 이겨냈습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신앙과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신앙 안에서 꿈을 이루고 그림에서도 '대가'로 인정받았습니다. 풍속화와 역사화를 새롭게 해석하는 일에 몰두하였고, 기독교 미술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개척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또 김학수 장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교회를 설립하고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돌볼 뿐 아니라 그들이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선행도 계속하였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그 의미와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2.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여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찬 송 : 218장(통 369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주기도문 : 다함께

6과

농촌운동가
조민형 장로

조용한 기도 : 다함께

찬　　송 : 339장(통 365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기　　도 : 맡은 이

성경봉독 : 사도행전 7:54~60

참고성경 : 히브리서 11:33~40

요　　절 :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행 7:60)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6월에 소개하는 인물은 공덕교회 조민형 장로입니다. 그는 1920~30년대 한국 교회가 전개한 농촌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분입니다. 이론과 실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최고의 기독교 농촌운동가로 한국 농촌의 위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극복하고 이상적인 농촌을 건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농장에서 농사를 지었고, '계'를 조직하여 농민들의 공동생활을 시도하였

습니다.

또 조민형 장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조선농촌구제책』이란 기독교 농촌운동사에서 기념비적인 책으로 엮어내어 일반인과 사회가 농촌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운동이 경제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운동으로 시작되는 것이기에 기독교인의 책임이 막중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본론 조민형 장로는 1896년 함경남도 북청의 농촌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경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야오야마학원 신학부를 졸업하였습니다. 귀국하여 서울 종교교회에 출석하면서 남감리회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배화학교의 부속 광희문여학교 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배화학교 교사인 김응집 이정찬과 각종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여 출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야오야마학원 동창인 전영택 목사의 소개로 협성여자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동시에 그는 종교교회 엡웟청년회 부회장, 전도사(장로) 등을 맡았고, 서울과 지방을 순회하며 전도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순회 전도집회를 하면서 당시 피폐해진 한국 농촌의 실정을 생생하게 체험한 조민형 장로는 우리 민족의 살길은 농촌계발에 있음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그는 돌연 학교를 사직하고 농촌운동에 투신하였습니다. 먼저 한국과 일본의 농촌을 시찰한 후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실험에 나섰습니다. 1924년에는 '선만개척주식회사' 소유이며 일본인 이와세가 책임자로 있던 김포농장에 들어가 본격적인 농촌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농사를 지으며 농촌을 살릴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동시에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하여 농촌에 보급하였고 농업 협동조합을 구상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하였습니다.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큰 타격을 받아 경제적 곤란에 빠졌으며 정신적으로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민형은 1927년 김포 포내면 걸포리에 '걸포리산업저축계'를 조직하여 농촌운동의 시험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계에서 그가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은 농한기를 이용한 새끼 꼬기와 가마니 짜기였습니다. 일정기간을 두고 한 사람이 가마니 30립씩을 의무적으로 짜서 계에 납품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분한 양의 가마니를 모았습니다. 현지에서 쓸 가마니를 남겨 놓고 판매한 것만도 상당하였습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그는 김포농장 안에 논 1정 2단보를 설정하고 새로운 개량방법을 사용하여 공동경작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낼만한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후 이 논은 곡종을 얻기 위한 채종답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착수한 사업은 식량의 공동구입이었습니다. 8, 9월 농가에 식량이 떨어져 굶주릴 때에 그는 저리로 돈을 얻어 서울에서 값이 싼 좁쌀을 공동구입하여 계원들에게 분배했습니다. 겨울에는 필요한 옷감을 공동구입하였습니다. 그는 계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신적 각성과 주부들의 살림살이에 대한 계몽과 실행에도 힘썼습니다. 조민형 장로가 지도하는 이와 같은 사업으로 걸포리 산업저축계는 1년 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계원들은 물론 인근 지역의 농민들에게서 많은 호응을 받아 1928년 김포 일대에 8곳 계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실제적인 농촌 생활을 경험한 조민형은 더욱 체계적인 농촌운동을 위해 1929년 『조선농촌구제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시의적절한 시기에 발간된 이 책은 한국에서 전개된 농촌운동에 큰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기독교농촌운동의 선구적이고도 핵심적인 지침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기독교농촌운동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지침은 정신운동

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농촌진흥이 즉 경제운동이 아니다. 정신상 기초가 없는 경제운동은 일일이 실패에 돌아가고 만다. 그런고로 우리는 먼저 정신운동 즉 종교운동으로 농촌운동의 첫걸음을 삼지 아니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 한다. … 조선의 30만 기독교 신자들이여, 우리의 특권이 이에 있으며 농촌의 진흥, 조선 사람의 활로가 오직 그리스도에 있음인저"

이 책은 비슷한 시기에 나온 다른 글이나 책보다 더 현실적 경험에 기초하여 썼기에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이로 인해 농촌뿐 아니라 사회 각층에서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보였고, 교재로 활용되었습니다.

1930년에는 황해도 신천에 '이상적인 모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된 신천농민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1년 정도 후진 양성에 힘썼습니다. 그 후 황해도 연백의 송포농장에서 몇 년 동안 활동하다가 다시 김포로 복귀하였는데, 1939년 5월에는 김포면 면협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1940년경 서울로 이주하고 서울 공덕교회로 교적을 옮겨 교회를 섬겼습니다.

해방 후 조민형 장로는 행정가로 변신하였습니다. 미 군정기에는 서울시 고문관, 정부수립 후인 1949년 5월에는 김포군수로 임명되어 1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교가 복흥파와 재건파로 나뉘어 대립했을 때 복흥파의 수습대책위원회 책임을 맡았고, 1949년 두 파가 하나로 합할 때에는 통일전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1950년 6·25전쟁이 나자 숨어 지내다가 8월에 붙잡혀 납치된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공덕교회는 2002년 100주년 기념행사 때 그를 기념하는 '6·25 순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결론 조민형 장로는 무엇보다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기독교농촌운동가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농촌에 들어가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농촌의 문제를 발견하였고, 농민들과 공동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한국의 농촌문제를 보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얻은 경험과 지식을 글이나 책으로 세상에 널리 알림으로써 당시 농촌의 문제가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하였고, 또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농촌문제와 사회문제에 적극 나서도록 하였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우리나라의 농촌교회가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는지 알아봅시다.
2. 농촌교회를 돕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찬 송 : 488장(통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주기도문 : 다함께

7과

교회여성운동가
방현덕 장로

조용한 기도 : 다함께

찬　　송 : 220장(통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　　도 : 맡은 이

성경봉독 : 시편 127:1~5

참고성경 : 마가복음 7:24~30

요　　절 :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 127:3)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이달의 인물은 시온교회 방현덕 장로입니다. 그는 가정생활위원회 총무와 「새가정」 주간, 그리고 감리교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감리교신학대학 교수로 활동한 교회여성운동의 지도적인 인물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는 먼저 상실된 가정을 회복하고 건설하기 위해 '기독교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모가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한

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생각하고 참여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정치에서 소외된 여성의 참여권, 그 중에서도 교회의 여성 참여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론

방현덕 장로는 1926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해방 직전 세례를 받고 입교했으며 감리교신학대학(1964년)과 미국 스카렛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1972년부터 1980년까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가정생활위원회 총무로 활동하였습니다. 가정생활위원회는 '여성 문제와 기독교가정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지도 계몽'을 목적으로 설립된 초교파 교회여성운동 연합체입니다. 이 단체는 가정주간 행사, 가정생활전국대회 개최, '장한 남편상' 시상, 가정 문제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는 가정생활위원회를 이끌며 초교파적 교회여성 운동체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동시에 월간 기독교 잡지인 「새가정」 주간으로도 활약하였습니다. 「새가정」이 가정생활위원회가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새가정」은 본래 대한기독교서회에서 「기독교가정」이란 이름으로 발행했는데, 이것을 넘겨받아 1957년 6월호부터 가정생활위원회가 발행하였습니다.

그는 가정생활위원회 총무와 「새가정」 주간으로 활동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현대 사회의 격심한 변동으로 현대의 가정들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결과적으로 가정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상실된 가정 회복을 위한 해결책도 동시에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독교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세우시고 태초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가정은 육신이 출생하는 첫 무

대요, 몸과 마음이 함께 눈뜨는 온상이다. 생존의 긴요한 선악의 과정들과 영적 실재들을 가정에서 체험한다. 이곳에서 가족들이 함께 꿈꾸고, 기도하고, 배우며, 같이 자란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의 출생의 기쁨과 죽음의 슬픔을 체험하며 개성을 가진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생의 존재 의의를 추구해가는 것이다."

그는 파괴된 가정을 회복하고 회복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부모가 역할을 다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생각과 연구 활동을 『기독교 가정교육론』이란 책으로 엮었습니다.

방현덕의 활동에서 무엇보다 두드러진 것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를 지도하고 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1974년 여선교회 총회에서 전국연합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분열된 감리교의 통합을 호소하고, 여성의 교회 정치 참여권 획득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으로 여선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여선교회의 활동 공간이자 선교센터인 여선교회관 건립에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옛 감리교 협성여자신학교 교사로, 당시 감리교신학대학 남학생 기숙사로 사용하던 충정로 건물을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옥합 깨뜨리기 운동'을 펼쳐 회관매입기금을 모금하고, 1977년에 매매계약을 하였지만 학교에서 팔지 않기로 결정하자 여선교회원들은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남동의 미 연합감리회 선교부 건물을 처분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선교회는 선교부와 협의를 계속하였고 선교부 건물을 넘겨받았습니다. 선교부는 이 건물을 여선교회에 양도하고 여선교회는 선교부에 선

교기금을 기부하는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형식상 '기부'였으나 여선교회로서는 1억 3천여 만 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셈입니다. 이렇게 하여 여선교회의 오랜 숙원이던 독자적인 여선교회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선교회관은 여선교회원들의 교육과 교제의 장이 되었고, 대사회적인 선교센터로도 활용되었습니다.

당시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가 4년이었기 때문에 총회를 4년 주기로 열었습니다. 그러나 1981년부터는 전국대회와 별도로 총회를 소집, 임원을 개선하게 되었으며,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및 각 부장 임기도 4년에서 2년으로 줄였습니다. 이러한 회칙에 따라 1981년 12월 15일 정동제일교회에서 개최된 '제27차 총회'에서 방현덕 장로가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1983년 총회에서도 회장으로 다시 선임되어 1985년 12월까지 직임을 수행하였습니다. 재임 중인 1981년 7월 13일부터 21일까지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세계감리교여성연합회 세계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한국 여선교회의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또 방현덕 장로는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봉직하는 동안 남녀가 함께하는 새로운 신앙공동체, 증인공동체, 선교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교회 여성의 정치 참여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1984년 감리교 총회에서 모든 감리교 의회 기구에 평신도 대표의 30%를 여성으로 한다는 규정을 통과시키는 큰일을 해내었습니다. 여선교회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후배들의 사업과 운동을 격려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한편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에도 전념하다가 1991년 은퇴하였습니다. 서울 시온교회에서 수요예배의 사회를 보다가 쓰러진 후 투병하다가 1991년 8월 18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온교회에는 1960년대에 출석하여 속장·여선교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였고 1974년 장로로 취임하였으며 별세할 때까지 헌신하였습니다.

결론 방현덕 장로는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기독교 가정이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정의 회복과 건설을 위해 자신이 선교 현장에 뛰어들어 활동했습니다. 우선 교회연합단체에서 일하며 교회 여성들에게 가정의 중요성을 알렸고, 남성들도 이에 동참하도록 하였습니다.

방현덕 장로는 감리교 여선교회의 활동을 지도하고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여선교회원들의 의견과 활동을 수렴하여 이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데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여선교회관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남녀가 동등한 동반자의 관계에서 사회와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다양한 이 시대에서 가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2. 감리교와 한국 교회에서 여성들의 참여권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현황을 알아봅시다.

찬 송 : 559장(통 305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주기도문 : 다함께

8과

통일애국지사
신창균 장로

조용한 기도 : 다함께

찬　　송 : 93장(통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기　　도 : 맡은 이

성경봉독 : 에베소서 2:14~18

참고성경 : 에스겔 37:15~23

요　　절 :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엡 2:14)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8월의 인물은 신창균 장로입니다. 그는 조국의 통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인물입니다. 어려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받아 나라를 위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나라를 위한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이러한 활동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신창균 장로는 일제강점기에는 항일 독립운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

로 인해 교사직을 사임하고 중국으로 망명해야 하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통일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에 온몸을 바쳤습니다. 이 일로 사업체를 빼앗겨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 육체적 고통도 당했지만 통일운동에 헌신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본론

신창균 장로는 1908년 충북 영동에서 태어났습니다. 7세 때부터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하였으며 대전에서 기독교 선교 활동을 하던 종조부의 영향으로 누구보다도 민족의식이 투철했습니다. 그가 구체적인 항일운동에 나선 것은 3·1운동 때였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마을을 돌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동네 사람들까지 참여하는 만세 시위로 커졌습니다. 주동자였던 그는 체포되었으나 12세의 연소자라는 이유로 채찍만 맞고 석방되었습니다. 이때 자신 때문에 만세시위에 합세하여 구속되고 고문당한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가시지 않았고, 그 미안함이 이후 그가 올곧은 삶을 살도록 이끈 원천이 되었습니다.

1921년에는 대전으로 나와 학교를 다니면서 대전제일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소년회장, 엡웟청년회의 총무와 회장, 교회학교 교사로 활동하면서 조종범 이명제 목사와 이길용(손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워버린 동아일보 기자) 등 교회 지도자의 영향으로 민족의식이 고양되어 대전보통학교의 항일 동맹휴학을 주동하였습니다. 이후 영동보통학교 고등과를 거쳐 청주사범학교를 졸업(1930년)하고 청남보통학교에 부임하는 것으로 교직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과 사상에 대한 일경의 감시가 가중되어 1940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마카오에 거주하면서 임시정부 연락책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성냥공장과 전력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일본의 군사동향과 경제동향을 임시정부에 보고

하고 자금도 보냈습니다.

신창균은 1945년 4월 귀국하면서 정동제일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장로로서 침체에 빠진 교회를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특히 1945년 12월 황치헌 목사가 갑자기 담임목사직을 사임하자 난관에 빠진 교회를 수습하고, 새로운 담임목사인 김인영 목사를 청빙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회 회장과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대장, 유사부장으로 헌신하였습니다.

동시에 신창균 장로는 기독교의 각종 회의에 교회 혹은 감리교의 대표로 참가하였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이 각 교파로 나눠 환원하기보다는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는 통합된 교단으로 남기 위해 조직한 '기독교조선남부대회'에 재정부장으로 활동하였고, 기독교조선남부대회가 해체된 후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재건하는 위원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교가 해방 직후 복흥파와 재건파로 분열되었을 때에는 두 파의 합동을 위해 노력하였고, 1954년 호헌파가 분리되었을 때도 통합을 위한 역할을 하였으며, 총리원 이사와 감사로도 활동하였습니다. 1976년 갱신측이 분리되었을 때는 정동제일교회가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중립'을 결정하게 하여 이후 감리교가 다시 통합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1976년 정동제일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추진하며 의견이 갈라져 대립할 때의 일입니다. 대지가 좁으니 기존의 예배당을 헐고 새 예배당을 짓자는 의견과 기존의 예배당을 보존하고 새 예배당을 짓자는 의견이 대립하였습니다. 이때 그는 기존의 예배당을 헐지 않고 그 옆 공간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활동으로 결국 1897년에 봉헌된 벧엘예배당은 헐리지 않고 국가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감리교회의 자랑스러운 신앙유산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신창균 장로는 해방 직후부터 통일운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가장 큰 사명이자, 제2의 독립운동이라 생각하고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체를 빼앗기는 등 경제적으로 크게 피해를 입었고, 여러 차례 옥에 갇혔으며 자녀들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민주사회당 국민당 한국독립당의 중요 직책을 맡아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하였으며, 1948년 4월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협상에 김구 선생과 한독당 대표로 참가하여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후 돌아왔습니다.

1956년에는 평화통일, 남북협상 정책을 기본노선으로 하는 '진보당'을 조봉암과 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진보당 활동과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의 조봉암 돌풍 등이 이승만 정권을 자극하여 1958년 '진보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고 1년의 옥고를 치룬 후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 후 통일사회당과 민족통일촉진회,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에 참여하여 숱한 구속과 탄압에도 굴함 없이 통일운동에 매진하여 '통일운동사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4.19 혁명상'(1995년), '늦봄 통일상'(2002년), '백범정신실천상'(2004년) 등을 수상하였으며 2005년 3월에 별세하여 '범민족통일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회고록 『가시밭길에서도 느끼는 행복』(1997년)을 남겼습니다.

결론

신창균 장로는 소년 시절에 기독교에 입문한 후 역경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12세의 어린 나이에 3·1운동에 참여하여 고난을 당하였고, 그 후에도 항일 동맹휴학 사건, 사범대학 입학과 교사 부임, 마카오 생활, 남북협상 참가, 그리고 통일운동까지 어느 것 하나 편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라와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을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

았습니다. 결국 그의 삶 모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우리에게 '통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2.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찬　　송 : 330장(통 370장) 어둔 밤 쉬 되리니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주기도문 : 다함께

9과

사회사업가
장세환 장로

조용한 기도 : 다함께

찬　　송 : 286장(통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기　　도 : 맡은 이

성경봉독 : 골로새서 1:3~8

참고성경 : 마태복음 6:19~21

요　　절 :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골 1:6)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9월의 인물은 아현교회 장세환 장로입니다. 그는 결혼 후에야 기독교인이 되었으나, 신앙을 갖게 되면서부터 교회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아현교회뿐 아니라 감리교를 대표하는 평신도로 감리교의

중앙 정치 활동에 깊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으로 얻은 것을 교회 개척과 목회자 지원을 위해, 또 예배당 건축을 위해 아낌없이 희사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본론 장세환 장로는 1902년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32년에 부인 매영숙과 서울 아현교회에 출석하면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기에 건축 공사에 열정을 갖고 참여하였고, 그해 12월 세례를 받은 후 교회에 헌신하면서 유사와 탁사로 교회 운영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1937년 4월에는 아현교회 엡웟청년회 회장으로 선임되는 한편 10대 학생 중심 조직인 엡웟소년회 고문을 맡아 이들의 활동을 도왔으며, 매영숙은 1930년대 아현교회 여선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장세환 부부의 헌신으로 미자립으로 독립구역을 형성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자주 바뀌던 아현교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안정이 되었으며, 1938년에는 재정 자립을 이룩하고 독립구역이 되었습니다.

그는 해방 후에는 감리교를 대표하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일제 말기 본처전도사가 되어 평신도 대표로 연회에 참석하면서 '중앙 정치' 흐름을 파악하였고, 해방 후 장로로 취임했습니다. 1945년 재건파와 복흥파의 분열 과정에서 수습대책위원회 책임자, 복흥파 총리원 이사, 사회국 위원, 서무국 서기와 회계를 맡으면서 복흥파의 핵심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재건파와 복흥파의 통합 작업에 깊이 관여해 1949년 2월부터 복흥측 '7인 대표'로 통일전권위원회에 참여하여 서기로 통합의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하였고, 1949년 4월 29일~5월 1일 열린 합동 총회에서 총리원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총리원 서무위원장이 되어 통합 이후에도 총리원 운영에 깊이 관련하였습니다.

한편 해방 직전 50명 수준으로 떨어졌던 아현교회 교인수는 해방 직후

장년만 200명으로 증가하고, 1950년 초 다시 교인이 크게 늘어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장세환 장로 등이 자진하여 장의자 1개씩을 헌납하였습니다. 이것이 교인들을 자극하여 각 속회에서 장의자를 헌납하는 운동이 일어나 교회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광나루로 피신하여 교인들과 생활했던 그는 9·28 서울 수복 후 북아현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인공 치하 3개월 동안 교회가 당한 수난의 현장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배당은 파괴되지 않고 남아 있었지만 사택 한 채가 폭격을 맞아 없어졌고, "교인을 두고 피난갈 수 없다"며 홀로 교회를 지키던 조상문 담임목사는 이미 북으로 끌려간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추스르는 한편, 서울로 돌아온 목사들을 초빙해 주일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1·4후퇴 시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부산에 내려가 보수동의 2층짜리 적산 가옥을 얻어 '신양사'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한편, 박승호 전도사 가족을 비롯한 아현교회 교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곳에서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에 서울에서 피난 온 다른 교회 교인들도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수동감리교회로 발전하여 감리교의 남부지역 선교거점이 되었습니다. 한편 그는 피난 중에도 여전히 총리원 재단이사, 중앙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수동교회와 총리원 살림의 상당 부분을 책임졌습니다.

1953년 말 서울로 올라온 장세환은 끊어진 한강 철교 복구공사를 비롯하여 정부에서 발주하는 철도와 도로 건설공사의 상당 부분을 맡아 사업이 급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본래 베풀기를 좋아했던 부부는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교회 개척과 목회 지원에 아낌없이 희사하였습니다. 아직 사업이 번창하기 전이었고 전쟁 직후라 모두 자기 살기 바쁜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소유한 북아현동의 집을 교회에 헌납하였습니다. 이 집에서 아현교회 첫 번째 지교회인 '북성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954년 감리교의 호헌파 분열 때, 그는 총리원측을 대표하는 평신도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당시 중립적 입장을 취한 김성렬 담임목사와 대립하는 양상이 되었고, 1956년 아현중앙교회가 분립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남아 있는 교인들과 분열을 수습해갔습니다. 그리고 1954년에 확보한 미 연합감리회 여선교부 소유의 땅 위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958년 6월 1일 예배당 봉헌식과 아내 매영숙 등의 장로 취임식도 거행했습니다.

한편 장세환은 자선사업으로도 유명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교회의 어려움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발벗고 나섰으며 특히 농촌 목회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인 또한 자선사업가로서 애지고아원을 설립 운영하면서 생활이 곤란한 교역자들을 지원하였습니다.

1962년 회갑을 기념해 남가좌동에 신흥교회(현 모래내교회)를 개척 봉헌하였고, 1963년 아현유치원 재건에 앞장섰으며, 교회교육에서도 헌신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1965년 10월 아현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부인과 함께 '교회출석 30년 이상' 표창을 받았으며, 1975년 10월 창립 70주년을 맞아 '교회 중흥 공로자' 표창을 받는 등 아현교회 역사의 산증인이었습니다. 1991년 8월 14일 90세를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결론

장세환 장로는 첫 신앙의 감격을 갖고 사랑을 실천한 분입니다. 아현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아현교회와 함께한 아현교회 역사의 산증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교회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기꺼이 참여하였습니다. 그의 헌신으로 아현교회는 크게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장세환 장로는 또 사회사업 활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자신의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도 아끼지 않고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교회뿐 아

니라 다른 교회의 어려움까지도 해결하려고 나섰으며 특히 농촌의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교회에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 어떻게 교회와 지역을 섬길 수 있을까요?

찬　　송 : 459장(통 514장) 누가 주를 따라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주기도문 : 다함께

10과

교회여성운동가
홍에스더 장로

조용한 기도 : 다함께

찬　　송 : 204장(통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기　　도 : 맡은 이

성경봉독 : 누가복음 7:36~50

참고성경 : 에스더 4:13~17

요　　절 :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눅 7:50)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이달의 인물은 홍에스더 장로입니다. 여성교육과 선교사업에 관련한 그의 활동은 교회는 물론 더 나아가 감리교와 한국 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었습니다.

홍에스더 장로는 감리교 여선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미 감리회 시절에 여선교회 회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고, 남북 감리회가 하나 되어 조선기독교감리회가 창립된 이후에는 합동된 여선교회의 초대회장으

로 활동하여 여선교회 발전의 산파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시기 감리교 여선교회를 지도하고 이끌었고, 해방 후 재건된 여선교회에서도 회장으로 일함으로써 오늘의 여선교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본론 홍에스더 장로는 1892년 서울 새문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홍정후는 선교 초기 새문안교회와 연동교회에서 선교사들과 활동한 장로교의 지도급 인물이었고,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홍에스더는 아버지가 1899년 33세의 나이에 사고로 별세하자 고향인 남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조모 밑에서 성장하면서 신학문을 접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의 이화학당에 진학하여 1912년에 졸업하고, 이화보통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정동제일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1917년 이화학당 대학부에 진학하여 1922년 졸업하였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는 만주 무관학교를 지원할 목적으로 여성들이 중심이 된 동지회를 결성하고 이를 지도하였고, 1920년 6월에는 정동제일교회 교인이면서 이화학당 교사나 학생인 7명으로 '이화 7인 전도대'를 조직해서 전국을 순회하며 여성계몽강연을 열었습니다.

그는 '절제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절제운동은 일제가 우리의 민족정신을 훼손하기 위해 퍼트렸던 퇴폐 향락 사치문화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난 운동으로 여성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정신적인 신앙운동에서 더 나아가 한국을 살리기 위한 민족운동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1923년 〈조선기독교여자절제회〉를 조직하고 초대회장으로 선임되어 금주, 단연, 공창 폐지, 물감들인 옷 입기 등을 실천했으며, 1961년에도 회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1922년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교사로 재직하였으며, 1923년 미 감리

회 여선교사 채핀(A. B. Chaffin)과 월터(A. J. Walter)의 후원을 얻어 미국 테네시 주 스카렛대학 신학부에 입학하여 1926년에 졸업하였습니다.

홍에스더는 1926년 귀국하여 감리교신학교 교수로 취임하는 한편 1927년에는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YWCA)〉 회장으로 교육과 여성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1927년 4월 〈신간회〉의 자매기구 형태로 만든 여성 민족운동단체인 〈근우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5월에 열린 창립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근우회〉는 1927년 5월, 3·1운동 후 일제의 민족운동세력 분열정책이 기승을 부리던 때에 청년 학생 종교인 노동자 지식인 계층이 민족의 자주독립을 이념으로 〈신간회〉가 조직되자 이에 맞물려 여성계에서 결성한 민족운동단체였습니다. 〈근우회〉는 "① 조선 여자의 견고한 단결, ② 조선 여자의 지위 향상 도모"라는 강령에 따라, 억압과 착취가 일반화된 식민지 봉건 사회에서 여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계몽, 교육활동과 구체적인 생활 개선 운동 등의 적극적 여성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930년 12월 하나 된 '기독교조선감리회' 총회 때에는 미 감리회 평신도 총대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새로 시작하는 조선감리교와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총회에서 감리교 총리원 이사와 교육국·중앙협의회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감리교신학교 이사(1937년), 대한YWCA연합회 회장(1927~1932년, 1940~1941년)과 부회장·연합위원·총무(1934~1936년)를 역임하였습니다.

홍에스더 장로는 여선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큰 공헌을 남긴 감리교 여선교회의 상징입니다. 1928~29년에는 미 감리회 여선교회 회장이었으며, 제1회 '기독교조선감리회 여선교회' 대회(1931년 6월)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1941년 여선교회가 해산당하고 '부인회'로 이름이 바뀔 때에도 그 직임을 감당하는 영욕을 짊어졌습니다.

해방 후에는 단절된 여선교회의 역사를 잇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1947년 여선교회 대회에서 다시 회장으로 선임되어 먼저 복흥측 여선교회를 재건하였고, 1948년 4월 대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여선교회 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홍에스더 장로는 끊어졌던 여선교회의 역사적 전통을 잇는 막대한 임무를 부여받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각자가 깊이 회개하고 힘써야 할 것은 땅끝까지 전도하는 것입니다."라고 일제말기 친일행각에 동원되었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1949년 5월에는 총리원에 신설된 '부녀국' 초대총무로, 1953년에는 여선교회 총무로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감리교 여선교회가 세계감리교여성연합회의 정식회원이 된 1956년에는 미국 레이크 주 날루스카에서 열린 세계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한국 감리교 여선교회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1961년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에서 40년 교회 및 사회봉사 근속 표창을 받았고, 1973년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1975년 서울 자택에서 별세하였으며 1978년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결론

홍에스더 장로는 대단한 활동력을 보인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교회뿐 아니라 감리교와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서 다양하게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전도활동, 교육활동, 여권운동, 여선교회 활동 등에서 여러 단체를 지도하고 이끄는 뛰어난 지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홍에스더 장로가 일생 중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계한 것은 여선교회 활동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감리교 여선교회 창립 때 초대회장으로 선임되는 영예를 받았고, 또 일제의 강요로 여선교회가 해산당하고 친일적인 부인회로 바뀔 때에도 그 직임을 계속 감당하여 치욕을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를 묵묵히 감당하였고 해방 후 새로운 여선교회

를 재건할 수 있었기에 한국 감리교 여선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여성 교인들이 교회에서 그 지위를 보장받고 있습니까?
2. 남선교회와 여선교회가 한 주제를 놓고 함께하는 토론하는 모임을 가져봅시다.

찬　　송 : 500장(통 258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주기도문 : 다함께

11과

교육가
신봉조 장로

조용한 기도 : 다함께

찬　　송 : 524장(통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기　　도 : 맡은 이

성경봉독 : 마태복음 28:16~20

참고성경 : 열왕기상 19:19~21

요　　절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11월의 인물은 신봉조 장로입니다. 그는 정동제일교회를 위해 평생 헌신한 장로로 신앙실천을 강조하였고, 자신도 그렇게 사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교사의 길을 천직으로 알아 일제의 위기 상황에서도 배재고등보통학교와 이화고등여학교라는 감리교 선교

학교에서 한눈팔지 않고 외길로 정진하였습니다.

신봉조 장로는 특히 여성을 위한 교육에 헌신하였습니다. 여자야학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화고등여학교에서 그의 이념과 사상을 실천하였고 결국에는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본론

신봉조 장로는 1900년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났습니다. 탄광업을 하던 부친이 일찍 별세하여 가난하게 살았고 겨우 보통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움에 대한 열정을 포기할 수 없어서 우편국에서 일하면서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였고, 이때 모은 돈으로 1915년 배재학당(후에 배재고등보통학교로 변경)에 입학하였습니다.

재학 중에는 학업에 정진하는 한편 배재학생기독교청년회에 가입하여 성경교사로 활동하던 김진호 전도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민족의식과 신앙을 키워갔습니다. 그는 부회장 등으로 역할하면서 종교 활동에 앞장섰고, 3·1운동 때에는 만세시위에 적극 나섰습니다. 특히 1919년 3월 1일 파고다공원 집회와 3월 5일 학생들의 서울 시내의 만세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이 일로 체포되어 9개월의 옥고를 치른 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1920년에는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여 역사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에 베커 선교사의 집에서 장작을 패고 스토브에 불을 피우는 등의 노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도 남을 돕고 민족을 계몽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1921년에는 차미리사가 종교교회에 설립한 여자야학에 가서 선생 노릇, 소사 노릇 등을 하며 큰 도움을 주었고, 여름에는 전국을 돌며 '여자 교육의 급선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여 여성계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1924년 연희전문학교 졸업 후에는 배재고보의 역사 교사로 부임하여 본격적으로 직업교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강압적인 교육방법을 최상으로 여기던 당시에 매를 들지 않는 교사로 유명하였고, "정의를 위해

서는 백 번 꺾어도 굽히지 말 것이며 최후의 일순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며 민족정신과 애교심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27년에는 배재 교비생으로 일본에 유학하여 도호쿠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다시 배재고등보통학교로 돌아가 훈육 및 교무주임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신봉조는 1938년 12월 감리교 선교학교인 이화고등여학교에 최초의 한국인 교장이 되었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교육통제가 시작되면서 기독교계 사립학교에서 교장직과 학교운영권에서 선교사들을 배제하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처지(M. E. Church) 교장은 일제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물러나고, 신봉조가 교장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최악의 시기에 교장의 직책을 맡은 그는 오로지 '생명을 부지한다'는 일념으로 일제가 강요하는 치욕을 견뎌내었고,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1944년 4월 감리교 선교부를 대신하는 자구책으로 새 재단법인 '유하학원'(해방 후 '이화학원'으로 명칭 변경)을 설립하여 학교를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이화가 국내 최고의 여자 중등교육기관으로 확충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는 1961년 9월 정년퇴임하기까지 20여 년 동안 이화를 위해 헌신하면서, 이화를 빛내고 나라에 공헌하는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시켰습니다. 신봉조 장로는 이화 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화 발전을 위한 큰 공로자일 뿐 아니라, 진실한 교육가이시며, 사랑 많으신 아버님이시며, 충성된 신앙인"으로 그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이화 역사 100년 만에 처음으로 목사가 된 오혜식은 그를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신봉조 선생님은 존경받는 교육자이셨습니다. 아침 조회 때마다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그 귀한 말씀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저의 귀에 메아리처럼 쟁쟁하게 울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화동산에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큰 길, 좁은 길, 언덕길, 오솔길, 하얀 길, 굽어진 길, 내리막길, 평평한 길들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이러한 여러 모습의 길들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게 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신봉조 교장선생님은 진실된 분이셨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길만이 참된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편 신봉조 장로는 1945년 이화가 낳은 애국자 유관순의 행적을 밝혀서 오늘의 유관순으로 부활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박인덕에게 "이화 출신 중에 국가와 민족에 공헌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이에 박인덕은 3·1운동 때 순국한 유관순을 소개하였고, 이후 유관순에 대한 사실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1947년 8월 〈유관순 기념사업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 사업회를 통해 유관순 사업이 본격화되어 영화와 전기를 만들고 그 활동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퇴임 후 학교법인 이화학원 이사장과 명예이사장, 서울예술학원 명예이사장, 상명학원 감사 이사 이사장, 그 외 학교법인 한양학원 영훈학원 연세대학교 재헌학원 새빛학원 인덕학원 배재학당의 이사 또는 부이사장으로 사학육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서울 학도체육지도위원 공로표창, 서울음악제전 양악80주년음악공로상, 국민교육헌장 이념구현공로상(대통령), 서울시문화상(교육부문), 제1회 사학육성 공로표창, 국민훈장 모란장, 한국로타리클럽 개척자상, 5·16민족상 교육부문 본상, 한국여성단체 공로상, 사학육성 공로상(봉황장)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27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론 신봉조 장로는 배재학당을 통해 삶을 변화시킨 인물입니다. 배재학당의 기독학생청년회를 통해 기독교신앙을 갖게 되었고, 민족의식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다시 되돌리는 교사의 길을 평생 걸었습니다. 그는 배재고등보통학교의 교사, 이화고등여학교 교장, 이화학원·이화예술학원 명예이사장으로 역할하면서 많은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신봉조 장로는 특히 이 땅의 여성들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여성교육과 예술교육의 밀알을 틔워 풍요한 열매를 거둔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의 이화를 한국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발전시켰고, 빈손으로 넘겨받은 이화재단을 한국에서 가장 튼실한 재단으로 가꾸어 놓았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참된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몸소 실천하며 얻은 결과였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신앙과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2.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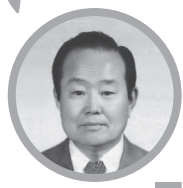
찬 송 : 338장(통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주기도문 : 다함께

12과

한국 교회음악의 개척자
이유선 장로



조용한 기도 : 다함께

찬　　송 : 323장(통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기　　도 : 맡은 이

성경봉독 : 이사야 6:6~13

참고성경 : 고린도전서 4:1~5

요　　절 :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사 6:8)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올해의 마지막 12월의 인물은 이유선 장로입니다. 그는 서울 남산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장로로 취임하여 교회에 헌신한 인물입니다. 그는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이후 한 번도 감리교를 떠나지 않고 평생 감리교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유선 장로는 배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연희전문학교에 진학하여 상과를 전공했지만 전공과는 전혀 다른 음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때로는 테너가수였고, 때로는 성가대 지휘자, 때로는 작곡가, 때로는 음악 교수, 때로는 음악평론가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본론

이유선 장로는 1911년 평양 남산현교회 사택에서 이익모 목사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익모 목사는 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평양 남산현교회, 인천 내리교회, 서울 상동교회, 공주교회 등에서 헌신하면서 목회에만 전념했던 감리교 목사입니다. 이유선은 감리교 선교학교인 공주 영명학교에서 초등학교를 마쳤고 이어서 감리교 선교학교인 배재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하여 1928년에 졸업하였습니다. 그 후 연희전문학교 상과(1933년)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공부보다 음악에 심취했던 그는 배재고등보통학교 시절 현제명의 문하에서 성악을 공부하였고, 연희전문학교에 재학하면서는 본격적인 테너 가수가 되어 OK레코드사의 전속가수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 후 본격적으로 음악을 전공하기로 작정하고 1935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아메리칸 콘서바토리(American Conservatory of Music)의 정규 학부에서 주전공 음악실기는 성악, 복수전공은 합창지휘와 작곡이론을 배운 후 음악학사 학위를 받고 1940년에 귀국하였습니다. 당시 학부의 정규과정을 제대로 마치고 음악학사 학위를 취득한 음악인은 그뿐이었습니다. 한편 그는 유학을 가기 전 인천 영화여자보통학교의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이때 함께 근무하던 이화여자전문학교 메이퀸 출신 최신덕과 평양에서 이윤영 목사의 주례로 결혼하였습니다. 메이퀸과 테너가수의 결혼으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하였습니다.

귀국 후에는 일제의 방해로 교수가 되는 것이 여의치 않자 평양에 머물

면서 남산현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평양요한학교에서 음악과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이 무렵 자신과 우리 민족의 상황을 나타내는 "입다문 꽃"이란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사는 "어여쁜 꽃봉오리/수줍어서 입 다물었네/고개도 들지 않은 것/사랑스런 그 자태/이보소 벗님네들/수줍음이 아니라오/입 열어 풍진마실까/다문대로 있다오 있다오/다문대로 있다오 있다오"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와 우리 겨레의 형편을 비유적으로 노래했습니다.

해방 후 서울로 이주하여 미군정청 문교부 음악과장으로 활동하였으며, 그의 형 인선과 함께 〈국제오페라사〉를 창단하고 1948년 1월 한국 최초의 오페라 베르디의 '춘희'를 공연하였습니다. 이때 이유선 장로는 기획을 맡았습니다. 그의 형 이인선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내과의사지만 그 역시 1920년대부터 성악 활동에 나섰던 인물로 '동양제일의 테너가수'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이유선은 1949년에 다시 미국에 유학하여 시카고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이화여대와 연세대를 거쳐 1957년 중앙대 교수로 부임하여 1976년 정년은퇴까지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음악평론가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후 총신대학교와 호서대학 음악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 양성에 힘썼습니다.

한국음악협회 초대이사장과 한국예총 초대 부이사장, 한국교회음악협회장, 한국합창연맹 이사장 등도 역임하였습니다. 『기독교 음악사』, 『서양음악사』, 『한국양악 100년사』, 『화성학』 등의 저서와 『2불 80센트의 기적』이란 회고록을 남겼으며, 가곡 '가는 길',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323장)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597장) 등의 곡들을 썼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은 잘 알려진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 이호운 목사가 1950년 3월 미국 에반스턴 게렛신학교에 유학할 때 자신이 부름받은 사실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며, 부르신 주님에게 충성하고, 그의 영

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는 시를 썼던 것을 이유선 장로가 곡을 붙인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 1967년 『개편 찬송가』에 수록됨으로써 교인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지금도 헌신예배와 신학교 졸업식 등에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 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 없이 드리리다
3.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유선 장로는 해방 후 평양 남산현교회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서울 남산교회에 출석하여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1981년 장로로 취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다가 1990년 미국으로 이주하여 2005년 별세하였습니다. 1976년 서울시 문화상과 1983년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2011년에는 남산교회에서 이유선 장로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찬송가 기념비'를 설치하였습니다.

결론 이유선 장로는 신앙을 바탕으로 음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음악가입니다.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다시 일어서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찬송가에 수록된 2편의 작곡 찬송가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는 그 곡들을 통해 사람들이 과거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부르심에 결단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2016년 한 해를 마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찬양했습니까?.
2.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가요?

찬　　송 : 597장(통 378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주기도문 : 다함께

집필자
조이제 목사

중앙연회 여주서지방 여주소망교회 담임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위원회 위원(2000~200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운영위원 역임
한국기독교역사학회 감사(현)
총회 역사보존위원회 위원(현)

2016년 기독교대한감리회 평신도

월례회공과

감리교회를 빛낸 평신도 Ⅳ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110-73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TEL. 02-399-4346~8 / FAX. 02-399-4350

비매품